

# 이슬람권 주민의 한국유입에 대한 선교신학적 분석과 대응 모색

김창운\*

## I.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 II. 본론

1. 선행 연구 검토
2. 상황적 담론과 선교학적 대안의 필요성
3. 선교신학적 대안 모색

## III. 결론

\* 대전신학대학교 선교학 초빙교수

## ■ 한글초록

한국 기독교 공동체는 이슬람 인구의 유입에 대하여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슬람에 대하여 한국 사회의 대응은 다양하다. 세 가지로 추려보면 첫째, 경제 실리적 관점, 둘째 이슬라모포비아의 관점, 셋째 선교적 대척점에서의 갈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관계중심적 선교 패러다임의 구체적 적용을 위해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인간과 타종교 이해를 창조론적 관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둘째, 한국으로 입국한 무슬림들을 통해 기독교 공동체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관점을 여는 것이다. 셋째, 많은 선교적 연구들이 알려주듯이, 한국으로 들어온 무슬림들이야말로 소중한 선교적 대상이다. 넷째, 상황화적 선교의 한 방법으로써 공감적 스토리를 통해 무슬림에 접근하는 것이다. 이슬람의 문화 속에서 스스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들의 상황에 맞는 신앙 생활을 창출하도록 도와주는 노력이 필요한 때인 것이다.

**주제어:** 관계중심적 패러다임, 이슬라모포비아, 상황화적 선교, 이슬람과 성장, 평화와 공존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한국 기독교 공동체는 이슬람 인구의 유입에 대하여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다. 1990년대에 예견된 것처럼, 대한민국 사회는 세계화 시대를 맞았고 외국인들의 유입으로 다문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다.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2020년 외국인 유입 인구는 240만 여명에 이르고 있다.<sup>1</sup> 이미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글로벌 사회 속에서 대한민국도 다문화 사회에 대처할 고양된 시민의식이 제고되어야 할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주민들을 수용적이고 환대적 자세로 맞이하는 태도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민족의 유입과 함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문화적 충돌이라 할 수 있다. 문화는 종교를 동반하고 있고, 종교간 충돌은 사실상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이다. 특히 어느 종교들보다 포교성이 강한 기독교와 이슬람의 갈등은 양자가 공존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우려될만한 과제이다. 특히 현재 내국인 중 다수를 차지하는 기독교의 공동체가 이슬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선교신학적으로 어떤 대처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자리매김이 쉽지가 않다. 본 연구의 배경이 여기에 있다.

1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6](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6) (2022년 2월 24일 접속).

##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이슬람 인구의 확산에 따른 기독교의 선교신학적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8년 발표한 “2018 한국의 종교 현황”에서 무슬림 인구는 15만 명에 이른다.<sup>2</sup> 이슬람의 유입은 한국 사회에 다양한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이 연구는 다문화 사회로의 변모에 대한 수용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기독교 공동체가 우려하는 선교적 대척점에서의 대처 방안과 선교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다.

## II. 본론

### 1. 선행 연구 검토

이슬람의 유입과 확산에 대처하기 위한 연구들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박동신, 소윤정은 2000년 이후 2018년까지 기독교와 이슬람 관련, KCI에 게재된 논문들을 주제별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18년간 229개의 논문이 게재되었고, 그 중에 41개의 논문이 기독교와 이슬람의 교리와 연관된 것으로 전체의 17.9%에 해당된다.<sup>3</sup> 이슬람에 대한 기독교의 대응에 대한 연구의 주제들을 정리, 분석하였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고, 그 중에 ‘신론과 기독교

2 문화체육관광부, “2018 한국의 종교 현황,” 발간등록번호(11-1371000-000906-01, 2018년), 122.

3 박동신, 소윤정, “2000년 이후 KCI 게재 논문 중 기독교와 이슬람 관련 내용 분석,” 『복음과 선교』 41(2018), 81-112, 41개의 논문들 중에 신론과 기독교론은 16편, 꾸란과 성경은 9편, 구원론 3편, 할랄과 하람에 관련 연구는 3편, 천국, 교회론, 다와와 선교에 해당 연구는 각각 두편, 삼위일체, 죄, 부활과 재림, 창조론 관련 각 한 편의 논문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론,' '꾸란과 성경'이 선교적 변증을 위하여 중요한 주제였음을 밝혀주고 있다. 또한 선교학적 관점에서 이슬람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다.

그간 출판된 이슬람 연구의 문헌들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기독교 입장에서 이슬람에 대한 비판적 관점으로 쓴 문헌들이다. 특히 기독교의 보수적 관점에서 이슬람의 공격적 포교에 대한 적대감과 이슬람의 교리에 담긴 호전성(好戰性)을 강조함으로써 부정적 입장을 담고있다. 이만석의 『이슬람의 알라는 기독교의 하나님인가?』와 최한우의 『이슬람의 실체』, 그리고 소운정의 “이슬람교의 정체와 한국에서의 포교전략”<sup>4</sup>과 같은 연구들이 한국 사회에 이슬람이 미칠 수 있는 해악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둘째, 기독교 공동체가 선교를 위한 포용적, 대화적 관점에서 무슬림들을 대해야 할 것을 견지한 연구이다. 위의 관점이 이슬람에 대한 혐오적 태도라면 이 관점은 기독교 선교를 위하여 이슬람을 연구하고 포용적 자세로 접근하는 입장이다. 조르주 후스니(Georges Houssney)의 『이슬람 끌어안기』(Engaging Islam)와 이삭 이브라함(Ishak Ibrahim)의 『이슬람교 세계와 기독교 선교 방향』(Black Gold and Holy War), 그리고 G. 매리슨(Marrison)의 『기독교와 이슬람』(The Christianity Approach to Islam)이 그와 같은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역사에서 십자군 전쟁을 비롯한 분쟁의 역사를 청산하고 미래지향적 화해를 지지하는 관점에서 미로슬라프 볼프(Miroslav Volf)의 『알라: 기독교와 이슬람의 신은 같을까?』(Allah: A Christian Response)가 있다. 또한 안신의 연구 “이

4 소운정. “이슬람교의 정체와 한국에서의 포교전략.”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세계지역연구소 아랍문화연구원 편, 『ACTS 이슬람포럼 2013-2014』(경기: 올리브나무), 149-204

슬람 선교의 다양화와 종교학의 기여: 이해와 화해, 그리고 대화의 선교”와 김동문의 “이슬람 바로 알기 논의, 괴담 수준의 담론을 넘어서야 한다.”에서 동일한 관점을 보여준다.

셋째는 한국 사회에 이슬람을 소개하는 문헌들이다. 대표적으로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배포되고 있고, 이슬람을 소개하는 연구들이 소개되고 있다. 특히 이희수는 이슬람에 대한 문화적 접근들을 소개함으로써 이슬람에 대한 거부감과 편견을 깨도록 도전하고 있다.<sup>5</sup>

넷째, 종교철학, 인문학적 관점에서의 이슬람 연구이다. 종교학자 한스 쿡(Hans Küng)이 『한스쿡의 이슬람』 (Islam: Past, Present and Future)에서 이슬람을 종교철학적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으며, 카렌 암스트롱(Karen Armstrong)의 『이슬람』 (Islam), 마샬 허지슨(Marshall G. S. Hodgson)의 The Venture of Islam: Science and History of a World Civilization이 독자들에게 세계 시민으로서 종교철학적으로 이슬람을 이해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슬람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대처 방안을 연구하되 선교학적 대척점에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맥락에서 이전 연구들에서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한다. 특히 이슬람 인구의 유입에 따른 상황적 담론을 살펴보고, 교리적 차원에서의 충돌점이나 이슬라모포비아(Ismlamophobia)를 극복하며 평화와 공존의 차원에서 선교적 책임의 구현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5 이희수, 『이희수의 이슬람 - 한국의 지성을 위한 교양 필독서 21세기 중동과 이슬람 문화의 이해』 (서울: 청아출판사, 2021).

## 2. 상황적 담론<sup>6</sup>과 선교학적 대안의 필요성

이슬람에 대하여 한국 사회의 대응은 다양하다. 세 가지로 추려보면 첫째, 경제 실리적 관점, 둘째 이슬라모포비아의 관점, 셋째 선교적 대적점에서의 갈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1) 경제 실리적 관점

세계화 시대를 맞으며 대한민국도 무슬림 18억 인구를 대상으로 경제적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 주도적인 사업으로는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할랄<sup>7</sup> 시장으로의 진출을 통한 수출 산업 부양 계획을 발표하였고, UAE를 비롯한 4개 국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sup>8</sup> 관광분야, 식품 분야, 테마 파크, 할랄 식당 등을 한국에 조성함은 물론, 이슬람 국가를 대상으로 2017년까지 12억 달러의 수출 이윤을 목표로 관계부처와 기업들이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였다.<sup>9</sup> 문재인 정부 또한 중동국가에서의 활발한 경제협력을 체결하였다.<sup>10</sup> 대표적으로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를 중심으로 방산과 수소경제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외 중동의 걸프

6 대한민국 상황적 담론에 대한 구체적 자료들을 인용함에 있어 인터넷 자료들을 다수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7 “할랄(Halal)”이란 이슬람 율법에 의해 “허용된 것”을 말한다. 허용되지 않는 것을 “하람(Haram)”이라 하며 첨가물을 넣지 않은 야채나 과일류, 이슬람 율법의 도축방식에 따른 육류를 구분하여 할랄 식품이라 한다.

8 장연주, “‘할랄컨설턴트’, ‘할랄심사원’ 되볼까?,”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116000598&md=20150116113912\\_BL](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116000598&md=20150116113912_BL) / (2022년 2월 15일 접속).

9 청와대 정책 브리핑, “할랄식품·농산물 중동 첫 진출 교두보 마련,” [http://www.korea.kr/policy/diplomacyView.do?newsId=148792081&call\\_from=naver\\_news/](http://www.korea.kr/policy/diplomacyView.do?newsId=148792081&call_from=naver_news/) (2022년 2월 15일 접속).

10 신운우, “文대통령 중동순방 성과는…‘방산 수출·수소 협력,’”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95048> / (2022년 2월 10일 접속).

협력회의(GCC) 국가들과의 FTA를 협의하였다. 이슬람권 할랄 시장이 2023년 3조 달러로 추산되고, 방산으로 4조원 계약협정을 맺는 것을 고려할 때, 국가의 경제 실리면에서 긍정적으로 이해될 만하다. 수출산업이 증가됨으로써 GDP가 올라가는 상황을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 사회의 경제 기반에 중요한 노동자 인구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주민 노동자들을 거부할 수 없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경제적 실리를 위해 다문화 사회로의 변모를 수용하고 그 중 대다수인 이슬람권 출신의 이주민들도 환영하여 경제 실리(實利)를 살리자는 의견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무슬림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이주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우선 유럽에서의 다문화 정책의 실패를 그 이유로 들고 있는 경우이다. 워싱턴포스트의 발표를 인용, 한국 신문도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2010년 ‘독일의 다문화 정책은 실패했다’는 보도를 강조한다.<sup>11</sup> 프랑스의 경우 2011년 4월 11일 통과시킨 ‘부르카 금지법’이나, 이민자의 천국이라 불리는 스웨덴의 경우 회교도들의 폭력적인 행동과 복지 예산의 분배 문제, 영국의 경우 교회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모스크가 점점 늘어나고, 공교육에서 무슬림 어린이들을 위한 무슬림법 ‘샤리아’에 근거한 교육, 할랄 음식 제공을 종용받고 있는 상황들<sup>12</sup>을 고려할 때 경제적 이점만으로 무슬림 이주를 용인하는 것은 위험스런 면을 안고 있음이 주장되고 있는 것이다.

11 장은교, “‘난민의 어머니’에서 다시 ‘정치인 메르켈’로,” 『경향신문』, <http://www.focus.kr/view.php?key=2015121500085237517> / (2022년 2월 8일 접속).

12 소윤정, 앞의 논문, 149-204.

## 2) 이슬라모포비아(Islamophobia, 이슬람 혐오)의 관점<sup>13</sup>

한편 한국 사회에 이슬람에 대해 혐오적이고 적대적인 관점이 부각되는 것도 사실이다. 금세기 들어 빈번히 나타나는 이슬람 세력의 테러 위협이 첫 번째 원인이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무역센터를 강타한 이슬람 과격단체의 테러, 2015년 11월 이슬람 과격단체 IS가 일으킨 파리 연속 테러 사건 외에도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테러 위협은 전 세계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IS의 테러나 민간인 처형 장면들이 두려움을 주기에 합당해보인다. 2015년 대한민국도 IS의 테러에서 자유로운 국가는 아니라는 국정원 보고도 나오면서<sup>14</sup>, IS에 대한 공포와 함께, 이슬람포비아가 확산되었다. 특히 이슬라모포비아는 기독교에서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만석은 이슬람의 위협성과 급진주의적 성향을 대한민국 사회가 간과하면 안된다고 발표하며, 이슬람의 포교 전략이 평화를 표방하며, 경제협력과 이민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유럽을 잡기 위해서는 영국을, 동양을 잡기 위해서는 한국을 선택’ 하여 세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보고있다.<sup>15</sup>

반면, 이슬라모포비아에 대한 반대적 입장도 있다. “바른교

13 이슬라모포비아에 대한 정황과 정의는 정승현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정승현, “이슬라모포비아의 이해와 선교학적 함의,” *Muslim-Christian Encounter* 9(2, 2016), 9-43.

14 노승현, “외국인 근로자 IS 가담… “테러 조직 관련 외국인 51명 추방” 한국은 안전지대?,” 「서울신문」, 2016년 1월 20일,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120500386> / (2022. 1월 10일 접속). 당시 새누리당 이철희 의원은 국정원 발표를 인용, 이렇게 보고한다. “지난 2010년 이후 국내에서 일했던 외국인 근로자 7명이 출국 후 이슬람 순니파 조직 IS(이슬람국가)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 기간 국제 테러 조직과 관련된 외국인 51명이 추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IS 등에 의한 테러가 일어나지 않는 테러 안전 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15 이만석, “이슬람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크리스천 투데이」, 2008년 3월 17일,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191021> / (2022년 1월 8일 접속).

회아카데미”가 주최한 2008년 포럼에서는 “이슬람포비아(Islam-phobia), 실체를 진단한다”는 주제 토론에서 우리 사회에 이슬람포비아를 유발하는 자료의 출처들이 불분명하고 객관적이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한국에 거주하는 무슬림 유입 인구 통계부터 과장되거나 추측성에 불과했고, 소위 CIA의 보고판을 근거로 했다는 “이슬람화를 위한 8단계 전략”도 피터 하몬드(Peter Hammond)의 책, *Slavery, Terrorism & Islam- The Historical Roots and Contemporary Threat* 에서 인용한 것인데, 이 책이 이슬람포비아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며 대부분 근거들이 취약하고 사실무근이라는 것이다.<sup>16</sup>

한편, 2016년 뉴스앤조이에서는 “이슬람다시보기”라는 기획 이슈를 통해 국내 무슬림 이주민 인구 증가에 대하여 ‘국교가 이슬람인 나라에서 들어온 인구로 무슬림 인구를 따지면 40만 명이지만, 거기서 들어온 모든 사람을 무슬림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2015년 11월 통계에 비추어 ‘이슬람이 국교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출신 인구는 전년도에 비해 1-2만 명 줄어 들었고, 몽골,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미국인들이 늘었다’고 밝히면서 일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폭발적 증가’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주 노동자들이나 결혼을 통한 포교 전술이란 것도 현실적으로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실상 대부분 중소기업의 3D에 해당하는 일들을 하는데, 정부가 수용하는 ‘노동 송출 국가’는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이요, 이 나라들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을 경계, 차별하

16 김동문. “이슬람 바로 알기 논의, 괴담 수준의 담론을 넘어서야 한다.” 「바른교회아카데미, 청어람아카데미 공동기획포럼, 주제: 이슬람포비아(Islamphobia), 실체를 진단한다」 (2008년 12월 10일 접속).

는 온건한 나라들이라는 것이다. 결혼 이주민 또한 85%가 여성이자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슬람권의 결혼 전략 가능성은 미미하다는 것이다.<sup>17</sup> 결국, 이슬람포비아는 사실 근거가 없거나 객관성이 없는 추측성 음모론에서 출몰한다는 것이다. 무분별한 퍼나르기식 정보들이 오히려 공포를 부추기고, 적대감을 조성하며 사회를 혼란시키는 일에 가세한다는 것이며, 일부 기독교 교단과 단체들이 이런 일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 3) 선교신학적 대처 방안의 필요성

이러한 의견의 충돌은 기독교 공동체의 선교신학적 대처 방안이 필요함을 느끼게 한다. 기독교가 선교를 신앙의 책무로 강조하듯이, 이슬람은 매우 열성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포교를 위한 전술을 펴고 있다.<sup>18</sup> 한국에는 15,000명 이상의 이슬람 선교사가 잠입하여 근로자, 학생, 사업가로 암약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sup>19</sup> 한마디로 이슬람 인구의 유입은 그들의 문화 뿐 아니라, 포교적 종교를 안고 온다는 맥락에서 위협적으로 들린다. 이슬람은 한국에서의 이슬람화 7대 전략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목표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연구가 있다.<sup>20</sup>

권지윤은 이슬람 인구의 확장을 강조하며 2004년부터 2014년

17 구권효, “[이슬람 다시 보기] 무슬림 통해 IS 들어온다?,” 「뉴스앤조이」,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1512\\_/\(2022년 1월 18일 접속\)](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1512_/(2022년 1월 18일 접속)).

18 소운정, “이슬람교의 정체와 한국에서의 포교전략,”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세계지역연구소 아랍문화연구원 편, 『ACTS 이슬람포럼 2013-2014』 (경기: 올리브나무), 149-204. 이 논문에서 주로 소개되는 포교 전략으로 교육사업, 금융사업, 문화사업, 외식사업, 결혼 등이 거론된다.

19 이만석, Ibid.

20 허은열, 『국내 무슬림 공동체』 (서울: 대서, 2015), 219. 이 7대 전략이란 “1. 모스크 건립, 2. 국제 이슬람 학교 설립, 3. 이슬람 문화센터 설립, 4. 새로운 꾸란 번역, 5. 이슬람 대학 건립, 6. 이슬람 관련 서적과 자료 출판, 7 결혼을 통한 자녀 출산 전략” 등이다.

까지 이슬람 인구가 10년간 30%로 성장했음을 주목하고 이 확장세를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sup>21</sup> 그의 연구는 패트릭 존스톤(Patrick Johnstone)의 글 “Look at the Fields: Survey of the Task”을 인용하면서 “2050년에 유럽의 복음주의의 비율은 2.3%로 떨어질 것이며, 이와 반대로 유럽에서 무슬림 비율은 약 11%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였다.<sup>22</sup> 목회데이터연구소가 2020년 발표자료에서 ‘2050년 이후 무슬림 인구의 증가율이 가장 높아지고 머잖아 기독교 인구를 넘어설 것’이라는 연구<sup>23</sup>는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선교적 대책점에서의 신학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간과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끼게 한다.

### 3. 선교신학적 대안 모색

#### 1) 이슬람과 한국문화 조우

이슬람은 과거 우리 역사에서는 회회교(回回敎)라 불리었는데 이슬람 종교를 전파한 위그르족을 지칭하는 회흘족(회흘族)에서 유래한다.<sup>24</sup> 통일신라 시대에 당나라와 활발히 교류하였던 신라인들은 당시 중국까지 진출한 무슬림들과 교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본격적으로 한반도에 유입된 것은 고려시대 말기였다.<sup>25</sup> 몽골

21 권지윤, “한국 이슬람에 대한 한국교회의 선교적 접근법,” *Muslim-Christian Encounter* 7(1, 2014), 35, 9-57.

22 Frank, J Buijs and Jan Rath, “Muslims in Europe: The state of research” IMISCOE Working Paper (Amsterdam: University Amsterdam Press, 2002), 4-5, 재인용.

23 목회데이터연구소, “70년 이후, 이슬람교가 기독교를 제치고 세계 종교 1위로 부상,” 「넘버즈」 58(2020. 7. 31) [http://mhdata.or.kr/bbs/board.php?bo\\_table=koreadata&wr\\_id=109](http://mhdata.or.kr/bbs/board.php?bo_table=koreadata&wr_id=109) (2022년 1월 20일 접속).

24 채필근, 『비교종교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378.

25 박성수, “내국인 무슬림 공동체에 대한 선교적 이해 이슬람의 한국 선교 (Dawah): 어제와 오늘,” *Muslim-Christian Encounter* 10(1, 2017), 138-139.

부족 연합의 세력 확장 시대에 원나라의 사신으로 들어온 장순룡, 민보 등이 국적을 받아 정착하였고<sup>26</sup>, 설손의 후손들은 경주 지역에 정착하여 2,000명의 후손들을 두었다고 한다.<sup>27</sup> 이슬람은 조선 초기까지 고위 관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존속하였으나 세종 이후 유교적 쇄국 정책이 펼쳐지면서 이후 500년간 한국의 역사에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sup>28</sup> 이후 20세기 초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을 피신해온 무슬림들이 일본군에 망명을 요청하고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에 200명이 정착을 하였다. 뛰어난 흥정 상술을 발휘하며 전국에 70의 점포를 둔 사업 수완을 보였으나, 친일적 성향을 강하게 보이며 민중의 반감을 샀고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한국 땅을 떠나게 된다.<sup>29</sup>

이전에 이슬람에 대한 혐오와 반감은 근대에 들어서면서 반전되었다. 6.25전쟁에 파견된 유엔군 중에 터키 출신 무슬림 용병들이 들어왔고 이들의 피흘리는 헌신과 희생에 한국인들이 큰 호감을 가지게 된다. 피를 나눈 형제애를 나누게 되고 한국에서 이슬람교는 종교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으며, 1960년대 들어서며 이슬람 국가에서 국가 발전 기금과 함께 이슬람 포교를 위해 파견된 지식인들에 의해 활발한 활동이 시작되었고,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은 이슬람 협회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사원 건립을 위한 땅 1,500평을 기증하였고, 1976년 이슬람 사원이 준공되었다. 또한 당시 중동의 건설붐으로 많은 한국 노동자들이 중동에 파견되면서 이슬람 문화와의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이슬람에 대한 인식이 새로

26 Ibid., 139-140.

27 정수일, 『한국 속의 세계』 下 (서울: 창비, 2005), 136-137.

28 박성수, Ibid., 141.

29 이희수, 『이슬람과 한국 문화: 걸프 해에서 경주까지 1,200년 교류사』 (서울: 청아 출판사, 2012), 336-338.

워지고, 1990년 세계화 시대를 거치며 이슬람 인구가 한국에 들어 오기 시작하여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발표, 15만 명의 무슬림이 국내 거주하고 있다.<sup>30</sup>

## 2) 이슬라모포비아의 문제

한국사회의 다문화화는 세계화의 추세이며 한국의 시민들이 세계시민으로서의 고양된 자세를 요청한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처럼 이슬람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개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슬람에 대한 반감과 혐오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독교 공동체에서의 이슬라모포비아는 심각해보인다.

김선일은 한국 기독교의 이슬라모포비아 현상을 네 가지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 기독교와 이슬람이 지닌 역사적 경쟁 관계이다. 즉 이슬람의 포교와 아프리카, 유럽으로의 이주 과정, 중세 시대 두 종교의 충돌이 그 원인이라는 것이다. 둘째, 이슬람의 한국 포교에 대한 경계심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급성장하는 종교로서 적극적인 포교(다와, da'wah)를 추구하므로, 기독교의 선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셋째, 현대에 이슬람의 테러리즘 이미지이다. 2001년 9.11 테러 사건, 2007년 아프카스탄에서의 선교단체 납치 사건, IS의 잔혹성, 탈레반의 아프카니스탄 점령 등에서 나타나는 무슬림 세력의 이미지를 연상해볼 수 있다. 넷째, 한국 기독교가 쇠퇴하는 것에 대한 반작용적 자기보호 심리가 작용한다는 것이다.<sup>31</sup> 주지하다시피 기독교의 대사회적 신뢰도가 떨어지고 기독교인이 급격히 감소하고

30 이 조사는 한국내 이슬람 인구 15만 중에 외국인 무슬림은 11만 명으로, 내국인 무슬림도 4만 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31 김선일, “이슬라모포비아와 복음전도,” *Muslim-Christian Encounter* 9(2), 2016), 70-78.

있는 상황을 이슬람 유입으로 인한 것으로 이유를 드는 것이다. 김선일은 이러한 자기보호 심리에 대해 주목할만한 진단을 하고 있다. “위기에 직면한 집단들은 치열한 내부 자체 반성을 거쳐서 위기를 극복하려는 건전한 시도를 보이기도 하지만, 건전치 못한 경우에는 외부의 침입자를 설정하여 위기시의 결속 기회로 삼으려고 하기도 한다.”<sup>32</sup> 이러한 분석은 기독교 공동체에 도전을 준다.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 공동체가 자성의 시기를 거쳐야 한다는 역설이자, 스스로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선교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기독교의 정체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슬람과의 근본적 교리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3) 성경과 꾸란의 충돌

심리학, 언어학, 문화간 연구의 대가로서 아랍 지역을 중심으로 평생 선교한 조르주 후스니(George Hoossney)는 *Engaging Islam*에서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의 간극을 지적한다.

이슬람은 예수님을 예언자로 인정하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부인한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나 인격적이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되심을 부인한다. 성경책을 인정하나 믿을만한 것이 못된다고 가르치고, 모두 변개된 내용들이라고 믿는다. 천국과 지옥을 믿으나, 지하드, 순교, 하지 도중 사망을 제외하고는 믿는 자들이 확실히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지 못한다. 이슬람의 천국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처소가 아니라, 먹고 마시고 쾌락에 탐닉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한다면 어

32 Ibid., 77.

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sup>33</sup>

이슬람과 기독교의 신학은 충돌이 불가피하다. 기독교의 신론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지만, 이슬람은 유일한 신 알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성령의 임재를 불신한다. 신학, 교리적으로 대척적인 면은 적지 않게 살펴볼 수 있다. 기독교 신학의 신론에 연관된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자.

### (1) 선지자 예수

이슬람에게서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자 무함마드보다 저급한 선지자의 위치에 두고 있다. 꾸란(Quran) Nisa 4:171에 의하면, “메시아인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요 알라의 메신저일 뿐이다.... 고로 알라와 그의 메신저들을 믿으라.... 그러나 삼위일체라고는 말하지 말고 믿지도 말라. 알라는 유일한 신이요, 자녀 잉태를 초월하도록 높이 계신 분이다.”<sup>34</sup> 예수에 대하여 ‘메시아 예수’로 지칭하고 있지만(Nisa 4:171, Ma'ida 5:75, Imran 3:45), 알라에 근접한 이들 중에 뛰어난 인물로 표현하고 있다.<sup>35</sup>

Imran 3:49은 예수를 “알라가 허락하면 진흙으로 새의 형상을 만들어 숨을 불어넣으면 새가 되고, 알라가 허락하면 장님과 문둥

33 Georges Housney, *Engaging Islam*, 신동철 옮김, 『이슬람 끌어안기』 (서울: 콤파출판사, 2015), 103.

34 꾸란의 본문은 영문판 Saheeh International Version에 기초하여 사역으로 인용하였음. Al-Muntada Al-Islami, *The Quran: Arabic Text with Corresponding English Meanings*, Trans. Saheeh International- Riyadh, (Abulqasim Publishing House, 1997), 132.

35 Ibid., 69. Imran 3:45는 마리아의 예수 잉태 기사로서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천사들이 말하길, 마리아여, 알라께서 진실로 너에게 그 분으로부터 온 말씀의 좋은 소식을 주노니, 그의 이름을 메시아, 예수라 할 것이요, 이 세상과 내세에서, 알라에 근접한 이들 중에 뛰어난 마리아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들이 낮게 되며, 알라가 허락을 하면 죽은 자를 살게 하는” 인물로 기록한다.<sup>36</sup> 쿠란 Imran 3:59에서 밝히는 예수의 출생은 ‘알라가 흠으로 창조한 존재’였다. “아담과도 같이 알라가 흠으로 예수를 만들고, ‘있으라’ 하니 그가 있었다.”<sup>37</sup> 꾸란에서 예수는 알라의 피조물이다. 그러나 Imran 3:45에서는 예수의 출생이 천사들의 예고 후에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를 낳았다고 기록하는 불일치를 보여준다. 꾸란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도 구세주도 아닌 선지자, 즉 많은 메신저들 중의 한 명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꾸란 Ma'ida 5:17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기독교인들에 대해 ‘그들은 불신자이므로, 그에 대한 불지옥의 벌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sup>38</sup>

꾸란 마이다 Ma'ida 5:72에서는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자녀들아, 알라를 경배하라, 그 분은 나의 주요 너희의 주로다”라고 전한다. 그리고 “어떤 것들도 알라와 동등하게 여기면 그에게는 천국이 없을 것이요 불지옥이 그의 안식처가 될 것이며, 그러한 불신자들에게는 어떤 도울 이도 없을 것이라”<sup>39</sup>고 가르친다. 예수는 기적과 능력은 갖춘 선지자이지만, 알라의 피조물이고, 알라에게서 능력을 받았으며, 알라를 경배하도록 전하던 선지자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기독교인들은 불신자요, 불지옥에 해당된다는 면에서, 교리적

36 Ibid., 70. Ma'ida 5:110 참고.

37 Ibid., 71-72.

38 Ibid., 139. “알라를 그리스도라 마리아의 아들이라 말하는 자는 확실한 불신자들이다. 만일 알라가 마리아의 아들 그리스도나 그의 어머니나 세상에 모든 사람을 멸한다면 누가 막을 수 있으랴.”

39 Ibid., 151.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sup>40</sup>

## (2) 유일인격의 신 알라

꾸란의 신은 유일신이다. 기독교의 삼위일체적 신론과는 달리 유일한 창조주요 심판주이다. 아브라함, 모세 등의 성경이 인물들을 포함하여 예수도 유일신 알라의 피조물일 뿐이다. 무함마드가 믿는 알라는 죄를 감찰하고 심판하는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무조건적인 복종의 대상이었던 것이다.<sup>41</sup>

최한우는 무함마드가 가졌던 신문이 그의 자의식과 연관된다고 보았다. 무함마드는 기적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 이것은 언제나 표적을 구하던 유대인들과도 달랐고, 예수의 기적 이야기에 익숙한 기독교인들에게도 반감을 샀다. 그의 일관성 없는 가르침과 기적을 보여준 적이 없었으므로 자신의 선지자 됨을 어떻게든 강력하게 변호해야 했다. 그의 이야기들은 당시 기독교인들이 자신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분노하며 말을 마구 내뱉은 것이었다.<sup>42</sup> 또한 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형이상학적 이해를 하지 못하여, “사랑이 많은 아버지로서의 성부(聖父) 하나님”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깨달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영적 세계도 형이하학적으로 이해하였다. 지금도 무슬림은 기독교의 삼위일체에 대항하여, “어떻게

40 요한복음 17:5는 대표적으로 예수가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음을 보여주며, 요1:1은 태초로부터 말씀으로 임재하신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 요9:33은 예수의 기적 사건의 원인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마 11:5은 세례요한에게 주는 메시지로 창조 이래로 처음 벌어지는 이적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으며 성육신하신 예수의 권위를 보여준다.

41 반면에 기독교 전통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지녔으며(요1:9-13, 롬 8:14-16), 왕같은 제사장이다.(벧전 2:9)

42 최한우, 『이슬람의 실제』 (서울: KUIS Press, 2010), 77-86.

셋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한다.<sup>43</sup> 신의 초월적 속성의 차원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으므로 수용을 하지 않았고 그것이 이슬람 역사의 뿌리가 되어 오늘까지 전래되는 것이다.

### (3) 성령의 부인

이슬람이 기독교와의 사이에서 갖게 되는 결정적인 충돌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부정과 함께 성령의 부재이다. 꾸란은 예수의 동정녀 탄생, 기적 이야기들, 승천에 대해 인정하지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다. 십자가 사건에 대한 무함마드의 주장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나 알라가 그것을 막았다는 것이다. 꾸란 Ma'ida 5:110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너를 죽이려 할 때 내가 그들을 막았다.... ‘이것은 마법에 불과하다’고 말하는도다”라고 기록한다.<sup>44</sup> 또한 꾸란 Nisa 4:157에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고 마치 형상만 그러했을 뿐이라고 말한다.<sup>45</sup> 이슬람 민간 신앙은 십자가상에 죽은 자가 예수가 아니라 가룟 유다였다고 믿는다. 알라가 예수를 구하여 하늘로 승천을 시키고, 대신에 예수의 형상을 띤 가룟 유다가 십자가에서 처형된 것이었다는 것이다.<sup>46</sup> 예수의 죽음이 없는 꾸란에서는 당연히 부활도 없는 일이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부정과 함께 성령에 대해서도 불신한다. 예수의 탄생에 대해 ‘알라의 보냄을 받고 동정녀에게 예수를 잉태케 하였다’고 성령을 언급하다가도(Nisa 6:171)<sup>47</sup>,

43 Ibid., 77-86.

44 The Quran, Ibid., 159.

45 Ibid., 129-130.

46 최한우, 앞의 책, 88.

47 그 외에도 꾸란 Ma'ida 5:110, Baqara 2:87, Baqara 2:253, Shu'ara 26:193, Anbiya 21:193 등.

성령과 가브리엘 천사와 혼동되거나(Ma'ida 7:110) 예수를 피조물로 인정하고 알라만이 유일하다고 선포됨으로써 성령에 대한 논의는 자연적으로 소멸되고 만다.

결국, “이슬람의 알라가 기독교의 하나님인가?”라는 논의가 필요하다면, 신론의 관점에서의 간극과 함께 구원론적 관점에서도 이슬람과의 간극을 발견하게 한다. 알라를 믿는 무슬림에게 예수는 선지자일 뿐이므로 그를 믿는 자는 불신자들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이들에게는 불지옥이 예비 되어 있을 뿐이다. ‘예수 외에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행 4:12) 믿는 기독교의 구원론과 배치(背馳)될 수밖에 없는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 1400년 이상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들을 선교하기 위해 어떤 대안이 있을 것인가?

#### 4) 이슬람 선교를 위한 선교적 패러다임 모색

선교를 예수의 위임령으로 믿고 있는 기독교 공동체가 가져야 할 패러다임을 찾아야 할 때이다. 이슬라모포비아로 적대적 관계를 지지하는 것은 선교적이라 할 수 없다. 무엇보다 기독교 공동체가 자성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 (1) 역사 속에서의 자성

이슬람의 태동과 발전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복음의 능력을 잃고 선교적 능력을 상실하고 있었다. 이슬람이 발원하던 당시 기독교가 아라비아 지역에서 발흥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이삭 이브라함(Ishak Ibrahim)은 기독교의 능력 상실을 지적한다. 610년경 무함마드가 이슬람을 창시할 당시 아라비아의 기독교는 부패하고 힘

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단들이 사분오열로 등장하고,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난무하였고, 성경은 많이 전파되고 있었지만 기독교인들은 생명력을 잃고 있었다. 아라비아에 있던 소수 기독교인마저 윤리적 도덕성이 사라진 종교 안에 자신을 담고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sup>48</sup>

한편 기독교가 부흥했던 북아프리카 지역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터툴리안(2C, 155-240), 키프리안(Cyprian, 200-258), 어거스틴(4C, 354-430)과 같은 인물들을 배출한 곳이다. 어거스틴 때 북아프리카는 500개 교구가 있었고 이는 기독교 전체 인구 중 1/4에 해당되는 규모였고, 알렉산드리아교회나 로마교회보다 성직자들의 교육 수준이 높았고 영향력도 컸다. 그런데 머잖아 교회가 몰락하고 이슬람화 되었다. 허버트 케인은 이슬람의 발흥 시기에 기독교가 보여주었던 무력함을 선교 역사적 차원에서 기록하고 있다. 몇가지만 요약해보자면, 첫째, 교회가 숫자상 막강한 힘을 가졌지만 영적으로는 약했다. 둘째, 지역에서의 토착화에 실패했다. 기독교 공동체는 로마제국의 권력과 밀착하였고 라틴문화만을 향유하면서 현지 문화에 동화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카르타고 원주민들 중에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이 거의 없었고 심지어 베르베르인들은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상태에 있었다. 셋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적 신앙과 전도 열정을 잃어버렸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제의 지배권이 강화되고 성례 제도가 발전하면서 기독교 복음은 점점 약화되었다. 첫 사랑을 잃어버리고 진실한 교인이 아니라, '이름 뿐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결국 이슬람 군대가 지나갈 때 기독교회는 저항할 힘이 없었고 의지도 없었다. 11세기에 이

48 Ishak Ibrahim, *Black Gold and Holy War*, 윤삼열 역, 『이슬람교 세계와 기독교 선교 방향』 (서울: 보이스사, 1985), 85-86.

르러 북아프리카 교회는 급격하게 약화되었다.<sup>49</sup>

유럽의 경우도 그렇다. 최원진은 유럽이 이슬람화 된 것은 무슬림 인구가 성장하였던 이유가 아니라 교회가 세속화 되고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었고 분석하였다.<sup>50</sup> 오늘도 예외가 아니다. “유럽과 미주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의 80%와 한국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73%가 이전에 기독교인들이었다.”<sup>51</sup> 이슬람의 확산은 기독교 공동체에 먼저 겹쳐히 낮은 곳으로 내려가 스스로를 일깨우고 갱신을 요구하는 역사의 역설임을 생각하게 한다.

## (2) 선교의 관계중심적 패러다임 제고

기독교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적 존재이다. 성경은 그와 같은 사랑의 관계로 이웃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을 요청한다.(마 22:37-40) 이것은 무슬림에 대해서도 적대적, 혐오적 자세가 아니라, 사랑과 포용의 자세가 요구됨을 뜻한다. 매리슨(G. E. Marrison)은 이슬람 선교를 위하여 네 가지를 지적한다. 첫째, 우리들의 신학을 “책의 학문적인 용어에서 뿐만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의 내면적 구조와 선교적인 전략의 외면적이고 보편적인 책임과 관계 안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슬람의 도전 앞에서 “기독교 신앙의 풍부함(fullness)를 재정립”하라는 것이다. 이 목표를 위해 기독교 내에 만연한 세속화, 냉담함, 분파주의, 개인주의적 신앙의

49 J. Herbert Kane, *A Concise History of the Christian World Mission: A Panoramic View of Missions from Pentecost to the Present*, 변창욱 옮김, 『세계 선교 역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20), 116-119.

50 최원진, “이슬람의 한국 포교 활동과 이들을 향한 접근 전략,” 『복음과 선교』 55(2021), 462.

51 김성운, “이슬람의 신학적 도전과 교회의 대응방안: 이슬람 포교지들을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88(2018), 208-209.

문제들을 해결하여야 한다고 역설한다. 둘째,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들을 재음미하면서, 이슬람 신학에서 결핍된 '자비하신 아버지'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mediation)의 의미가 약한 사실을 염두하여, 이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한다. 세 번째, 기독교인의 생활 속에 종말론의 중요성을 재점검할 필요를 강조한다. 기독교가 지닌 종말론적인 사상은 지상에서의 삶을 설정하므로, 부활의 실재와 능력,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된 삶, 이런 진리의 요소들을 이슬람을 대하기 전에 먼저 확고히 다져져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교의 전략에 있어서 (신앙의 기초를 다진 후에는) 접근의 방법까지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sup>52</sup>

선교는 사랑이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임을 자부하며 역사적으로 타문화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슬람과 기독교의 신학, 교리적 차이점은 분명하여 교리적 공존은 불가능하지만, 문화적 공존은 가능하다.<sup>53</sup> 다문화 시대를 맞아 평화와 공존이 중요한 때에 세계 시민으로서 이웃하여 더불어 사는 아우름의 태도가 필요한 것이다. 이슬람 선교의 다양화를 위해서 안신은 세 가지를 제시한다. 즉 “이슬람에 대한 공감적 이해(Understanding),” “이슬람과의 신학적 차이를 인정하는 화해(Reconciliation),” 그리고 “무슬림 이웃과의 대화(dialogue)”의 태도이다.<sup>54</sup>

본 연구는 관계중심적 선교 패러다임의 구체적 적용을 위해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인간과 타종교 이해를 창조론적 관

52 G. E. Marrison, *The Christianity Approach to Islam*, 임흥빈 옮김, 『기독교와 이슬람』 (서울: 아세아신학사, 1991), 91-95.

53 장훈태, “기독교와 이슬람의 갈등,” 『선교와 신학』 27(2011), 171.

54 안신, “이슬람 선교의 다양화와 종교학의 기여: 이해와 화해, 그리고 대화의 선교,” 『선교신학』 제23집(2010) Vol. 1, 2010, 122-151.

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교리는 내 부적 신앙으로 간직하되, 타종교와 외부의 사람들을 대할 때는 개방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sup>55</sup> 무슬림 근본주의 과격단체의 사건들만을 보고 모든 무슬림이 그런 위험성을 지녔다고 보는 관점은 위험할 수 있다. 일부 근본주의적 기독교인들에게 의해 자행되는 불미한 사건을 보고, 사회의 시민들이 ‘그리스도인은 다 그렇다’고 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기독교가 진리와 사랑을 품은 종교임이 분명하다면 보다 크고 넓은 관점이 필요하다. 특히 구원론의 관점에서 타종교들을 배척하고 정죄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창조론적 관점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형재어로 바라보는 시각 변화가 중요하다. 그러한 인식의 변화에서부터, 무슬림은 물론 타종교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를 통해 “평화의 복음”이 발휘되는 것이다.

둘째, 한국으로 입국한 무슬림들을 통해 기독교 공동체가 성장하게 되는 관점을 여는 것이다. 문화인류학이 기독교 영성에 기여하는 소중한 명제는 ‘타문화는 자문화의 거울’이라는 것이다. 타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내게 성숙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오늘 시대에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사랑’, 이웃을 향한 ‘수평적 사랑’에 더하여 ‘타문화권 훈련을 통한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다.<sup>56</sup> 오늘날 다문화 시대에 성경을 보며 주목할 만한 것

55 김상근. "황당한 음모론에 할 말을 잃다: 작금의 이슬람포비아에 대한 저의 소견." 이슬람포비아를 진단한다. (<http://www.goodchurch.re.kr/> 「바른교회아카데미, 청어람아카데미 기획포럼」 (2008년 12월 10일 접속).

56 필자는 미래 한국교회의 방향성을 타진하며, 이것을 “상호문화적 변화(Intercultural Transformation)”이란 개념으로 이론화하여 학위를 마치고, 몇몇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에 접목하고 있다. 참고하고자 한다면, 필자의 줄고 “아브라함 설화 속에서 바라보는 상호문화적 변화 이야기: 다문화시대 기독교적 가치관 모색을 위하여,” 「선교와 신학」 36(2015), 47-74.

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예외 없이 타문화 경험을 쌓으며 성장했다는 사실이다. 기독교에서 영성 발달을 연구한 대가들 또한 하나같이 문화적 경계를 넘는 것에서 성장의 열쇠가 있음을 강조한다. 기독교 영성발달의 대가, 제임스 파울러(James Fowler), 스캇 펙(Scott Peck)은 물론 보수적 관점의 부르스 데마레스트(Bruce Demarest)도 동일한 관점에서 문화적 경계를 뛰어넘는 기독교 영성의 성장을 강조한다.<sup>57</sup> 무슬림들의 종교성에서 기독교인이 배울 만한 것은 없을까? 무슬림의 라마단 금식, 하루 5번의 즉 메카를 향해 기도하며 절을 하는 살라트 의식, 꾸란을 목숨처럼 아끼는 무슬림의 신앙은 그리스도인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sup>58</sup> 무슬림을 비롯한 이주민들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많은 선교적 연구들이 알려주듯이, 한국으로 들어온 무슬림들이야말로 소중한 선교적 대상이다. 한국교회가 선교에 목표를 두고 있다면, 자발적으로 한국을 찾아온 이들이야말로 선교사를 현지에 파송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선교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은인들이다. 최원진은 이슬람권 선교를 위하여 개인별 양육과 소그룹 모임, 예배 공동체 등의 훈련 센터를 제시하고 있다.<sup>59</sup> 스스로 찾아온 이슬람 이주민들을 위해 친구 그룹을 조성해주는 것은 어떤가? 그들이 이후 고국으로 돌아가 미칠 영향력을 생각하면, 무슬림을 비롯한 이주민들이야말로 고마운 선교의 동역자들인 것이다.

넷째, 상황화적 선교의 한 방법으로써 공감적 스토리를 통해 무슬림에 접근하는 것이다. 많은 전도 단체들이 이미 노력을 하고

57 상기한 필자의 줄고를 참고하라.

58 필자가 하버드 대학을 방문했을 때, 도서관 시계가 12시를 울리자 동시에 뛰어나와 기도문을 읽고 메카를 향해 엎드리는 무슬림 청년들을 보며 받았던 충격은 대단했다.

59 최원진, Ibid., 458-464.

있듯이, 예수의 이야기는 무슬림에게 낯선 것이 아니다. 영혼의 문제, 천국, 구원, 종말론도 그렇다. 구약의 인물들도 그들에게는 매우 친숙하다. 관계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또한 선교가 지향하는 영혼의 개종은 영적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슬람의 문화 속에서 스스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들의 상황에 맞는 신앙 생활을 창출하도록 도와주는 노력이 필요한 때인 것이다.

글을 맺으며 조르주 후스니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인용하고자 한다. 그는 ‘무슬림이 기독교인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들려준다. 성경을 쿠르드어로 번역하던 중에 바그다드대학의 한 무슬림 여교수가 그 일을 도와주었다고 한다. 한번은 그녀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가정부가 정숙하게 일을 잘 한다고 소개 하였다. 그리고 그 교수는 저 가정부가 크리스천이라고 덧붙였다. 다소 의아스런 표정을 짓는 조르주에게 그 교수가 나직하게 말했다. ‘무슬림 가정부는 못 믿지만 크리스천은 믿는다’는 것이었다.<sup>60</sup>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독교 역사의 시작은 소수의 진실된 그리스도인들로 시작되었고 전 세계로 흩어져 왔다.

### Ⅲ. 결론

기독교는 위기 속에서 존재해 왔고 긴장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느슨할 때 퇴보하였고 편안하고 부유할 때 타락하였다. 오늘 이 시대에 이슬람 유입을 통해 긴장감을 되찾게 되는 것은 이 시대

60 George Housney, 앞의 책, 37-38.

에 기독교 공동체를 향한 기회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영국의 매리슨의 권언처럼, 이때 우리를 성찰하며, 기독교의 진리와 그 안의 풍성함을 재점검하는 작업이 소중한 때이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How?)의 질문에 못지않게 기독교 진리의 풍성함에 기초한 정체성(Being)을 점검해야 할 때이다. 진리를 품은 자요, 구원을 약속받은 종말론적 실천가로서 교회의 교회됨에 대해서 새로이 성찰해야 하는 때이다. 지역과 함께 하는 교회, 작은 교회 운동, 약자들을 위한 교회 운동, 교회의 에큐메니칼 운동, 공공신학을 통한 공동체성 회복 운동, 선교적 교회론의 운동 등 기독교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은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무슬림은 하나님의 창조를 입은 영혼이다. 이들은 우리의 긴장의 끈을 다시 묶도록 해주는 인생 파트너요, 다름으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소중한 성장의 도우미들이다. 나아가 기독교의 복음을 전해주어야 할 소중한 영혼들이다. 교리를 사수하고 기독교 신앙과 공동체를 지키는 일은 물론 중요하다. 기독교 신앙이 강조하는 섭리적 관점에서 보면, 무슬림들을 만나게 된 이유가 있다. 한국의 기독교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성경의 진리와 공동체를 교회를 견고히 지키며, 문화를 뛰어넘는 관계 중심적 선교적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이만석. 『이슬람의 알라는 기독교의 하나님인가?』. 서울: 4HIM, 2012.
- 이희수. 『이슬람과 한국 문화: 걸프 해에서 경주까지 1,200년 교류사』 (서울: 청아 출판사, 2012.
- 이희수. 『이희수의 이슬람 - 한국의 지성을 위한 교양 필독서 21세기 중동과 이슬람 문화의 이해』. 서울: 청아출판사, 2021.
- 정수일. 『한국 속의 세계』 下 서울: 창비, 2005.
- 채필근. 『비교종교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 최한우. 『이슬람의 실체』. 서울: KUIS Press, 2010.
- 허은열. 『국내 무슬림 공동체』 (서울: 대서, 2015),
- 권지윤. “한국 이슬람에 대한 한국교회의 선교적 접근법.” *Muslim-Christian Encounter* 7(1, 2014), 9-57.
- 김창운. “아브라함 설화 속에서 바라보는 상호문화적 변화 이야기: 다문화시대 기독교적 가치관 모색을 위하여.” 『선교와 신학』 36(2015), (2015), 47-74.
- 김선일. “이슬라모포비아와 복음전도.” *Muslim-Christian Encounter* 9(2, 2016), 69-96.
- 김성운. “이슬람의 신학적 도전과 교회의 대응방안: 이슬람 포교자들을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88(2018), 185-224.
- 박동신, 소운정. “2000년 이후 KCI 게재 논문 중 기독교와 이슬람 관련 내용 분석.” 『복음과 선교』 41(2018), 81-112.
- 박성수. “내국인 무슬림 공동체에 대한 선교적 이해 이슬람의 한국 선교 (Dawah): 어제와 오늘.” *Muslim-Christian Encounter* 10(1, 2017), 133-171.

- 소윤정. “이슬람교의 정체와 한국에서의 포교전략. ACTS 이슬람 포럼 2013-2014.”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세계지역연구소 아랍문화연구원 편』 경기: 올리브나무, 2015.
- 안 신. “이슬람 선교의 다양화와 종교학의 기여: 이해와 화해, 그리고 대화의 선교.” 『선교신학』 23(2010), 122-151.
- 장훈태. “기독교와 이슬람의 갈등.” 『선교와 신학』 27(2011), 143-177.
- 정승현. “이슬라모포비아의 이해와 선교학적 함의.” 『Muslim-Christian Encounter』 9(2, 2016), 9-43.
- 최원진. “이슬람의 한국 포교 활동과 이들을 향한 접근 전략.” 『복음과 선교』 55(2021), 433-474.
- Houssney, Georges, *Engaging Islam*. 신동철 옮김. 『이슬람 끌어안기』. 서울: 콤파스출판사, 2015.
- Ibrahim, Ishak, *Black Gold and Holy War*, 윤상열 옮김. 『이슬람교 세계와 기독교 선교방향』. 서울: 보이시스사, 1985.
- Kane, J. Herbert. *A Concise History of the Christian World Mission : A Panoramic View of Missions from Pentecost to the Present*. 변창욱 옮김. 『세계 선교 역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20.
- Marrison, G. E., *The Christianity Approach to Islam*, 임흥빈 옮김. 『기독교와 이슬람』. 서울: 아세아신학사, 1991.
- McCurry, Don, *Now You Can Know What Muslims Believe*, 주지현 옮김. 『무슬림은 무엇을 믿는가?: 무슬림의 세계관』. 서울: 예수전도단, 2008.
- Volf, Miroslav, *Allah: A Christian Response*, 백지운 옮김. 『알라: 기독교와 이슬람의 신은 같은가?』. 서울:IVP, 2016.

- 노승현. “외국인 근로자 IS 가담… “테러 조직 관련 외국인 51명 추방” 한국은 안전지대?” 「서울신문」, 2016년 1월 20일,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120500386/> (2022. 1월 10일 접속).
- 구권효. “[이슬람 다시 보기]1 무슬림 통해 IS 들어온다?” 「뉴스앤조이」.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1512>. / (2022년 1월 18일 접속).
- 신윤우. “文대통령 중동순방 성과는… ‘방산 수출·수소 협력.’”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95048/> (2022년 2월 10일 접속).
- 이만석. “이슬람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크리스천 투데이」. 2008년 3월 17일,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191021](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191021/) / (2022년 1월 8일 접속).
- 장연주. “‘할랄컨설팅트’ ‘할랄심사원’ 되볼까?.”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116000598&md=20150116113912\\_BL](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116000598&md=20150116113912_BL) / (2022년 2월 15일 접속)
- 청와대 정책 브리핑. “할랄식품·농산물 중동 첫 진출 교두보 마련”, [http://www.korea.kr/policy/diplomacyView.do?newsId=148792081&call\\_from=naver\\_news](http://www.korea.kr/policy/diplomacyView.do?newsId=148792081&call_from=naver_news) / (2022년 2월 15일 접속).
- 장은교. “‘난민의 어머니’에서 다시 ‘정치인 메르켈’로.” 「경향신문」, <http://www.focus.kr/view.php?key=2015121500085237517/> (2022년 2월 8일 접속).
- 김동문. “이슬람 바로 알기 논의, 괴담 수준의 담론을 넘어서야 한다.” 「이슬람포비아 실체를 진단한다」 (2008월 12월

- 10일). <http://www.goodchurch.re.kr> (바른교회아카데미, 청어람아카데미 기획포럼).
- 김상근. “황당한 음모론에 할 말을 잃다: 작금의 이슬람포비아에 대한 저의 소견,” 「이슬람포비아 실체를 진단한다」 (2008월 12월 10일) <http://www.goodchurch.re.kr>. (바른교회아카데미, 청어람아카데미 기획포럼).
- 목회데이터연구소. “70년 이후, 이슬람교가 기독교를 제치고 세계 종교 1위로 부상.” 「넘버즈」 58(2020. 7. 31) [http://mhdata.or.kr/bbs/board.php?bo\\_table=koreadata&wr\\_id=109](http://mhdata.or.kr/bbs/board.php?bo_table=koreadata&wr_id=109) / (2022년 1월 20일 접속).
- 문화체육관광부. “2018 한국의 종교 현황.” 발간등록번호(11-1371000-000906-01, 2018년),
- 이현수. “국내 이슬람 이해의 현실과 제안. 이슬람포비아, 실체를 진단한다.” 「이슬람포비아 실체를 진단한다」 (2008월 12월 10일), <http://www.goodchurch.re.kr> (바른교회아카데미, 청어람아카데미 기획포럼).
- Al-Muntada Al-Islami. *The Quran: Arabic Text with Corresponding English Meanings*, Trans. Saheeh International- Riyadh, Abulqasim Publishing House, 1997.
- Frank, J Buijs and Jan Rath. “Muslims in Europe: The state of research.” IMISCOE Working Paper. Amsterdam: University Amsterdam Press, 2002.

■ ABSTRACT

## Missiological Analysis and Seeking Response to the Influx of Muslim Residents into Korea

Chang Wun Kim

The Korean Christian community confronts a problematic issue regarding the influx of the Islamic population. The Korean society's response to Islam is diverse and can fall under three perspectives—first, an economic, practical point of view, second, an Islamophobic point of view, and third, a missional counterpoint point of view.

This study presents specific applications of a relationship-based missional paradigm. First, it seeks to reset the understanding of humans and other religions from a creationism point of view. Second, the Christian community needs to embrace the view that a community grows by encountering other cultures such as that of Muslims. Third, Muslims who have entered Korea present precious, missional opportunities. Fourth, approaching Muslims through emphatic stories is an important method of doing contextual missionary work. It is time to make efforts to open the way for them to believe in Jesus

as the Lord and to help them have religious lives suitable to their situation.

**Keywords:** Relationship-based Paradigm, Islamophobia, Contextual Mission, Growth with Islam, Peace and Co-existence